

'달하 노피곰 도다사' 첫 공연 성황

정읍시 상설공연 1천여명 찾아 전통음악·창작국악 등 다채

정읍시가 백제가요 '정읍사'를 콘텐츠로 매일 마련하고 있는 보름 상설공연 첫 일정이 지난 19일 성황리에 열렸다.

당일 저녁 7시30분에 정읍시문화공원에서 펼쳐진 공연에는 모두 1천여명이 찾아 전통 가락과 춤사위를 즐겼다.

이날 쾌적한 녹지 공간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정읍시립국악단이 정읍을 노래한 '정춘아리랑'을 선보였고 정읍의 미래꿈나무인 초등학교생들이 연주하는 가야금 연주, 정춘예술단의 '태평무' 등이 이어졌다.

또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로 정읍스토리 노래를 들려주고 보름달빛을 배경으로 국악단 연주에 맞춘 택견 시연인 '달마시'가 진행됐으며, 지역상품을 판매하는 '올빼미 보부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김생기 시장은 "앞으로도 가족친화형 상설공연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해 시민 대화합을 꾀함으로써 정읍발전



정읍시가 매일 마련하고 있는 보름 상설공연 첫 일정이 19일 성황리에 열렸다.

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공연은 이달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일 보름(7월 18일, 8월 17일, 9월 15일,

10월 15일, 11월 14일)에 펼쳐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우리동네에서 즐기는 신나는 영화축제 오늘부터 김제 지평선시네마에서 열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라북도가 후원하며 사단법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와 김제 올랑홀랑 지평선시네마가 주관하는 "2016 작은영화관 기획전_김제"가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김제 올랑홀랑 지평선시네마에서 개최된다.

이번 "2016 작은영화관 기획전_김제"는 지역주민의 영화 영상문화 향유를 위하여 11편의 영화 프로그램을 28회에 걸쳐 영화 감상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역사적 사건, 인물을 소재로 영화적 해석을 가해 화제를 모은 이순신 장군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전쟁이야기 (명량)과 강원도 산골마을 노부부의 감동 리브스토리로 짧은 사랑꾼들에게 마음의 파동을 일으킨 독립영화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민고 보는 배우 황정민 등이 출연하여 1,3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베데랑>, 엄홍길 대장과 휴먼원정대의 위대한 도전을 담은 감동실화 <히말라야>, 우리 모두가 꼭 봐야하는 역사의 아픔을 그린 영화 <귀향>등을 다시 만나볼 수 있다.

생 텍쥐베리의 불후의 명작소설을 현대로 확장시킨 애니메이션 <어린왕자>외의 <말뚝쟁이>, <더 매직:리틀 톱과 도둑공주>, <빌리와 용감한 녀석들>, <문:달의 요정> 등 어린이의 동화적 상상력과 모험, 도전과 용기, 가족 관계에서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어린이 눈높이의 맞춤형 영화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동을 경험하게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손끝에서 피어난 감성 '진안고원 가림공예제' 성료

진안군은 지난 18일 진안창작공예공방에서 전통공예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공예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1회 진안고원 가림공예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창작공방육성회(대표 유종구) 주관으로 진안지역 공예인 연합 작품 전시회, 전통 장작가마 불때기 등 각종 공예체험, 지역공예품 및 농산물 판매 장터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공예축제는 진안지역의 역량 있는 공예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어 그 의미가 컸으며, 척박한 진안의 전통공

예환경에 단비를 내리줄 것으로 보인다. 이항로 군수는 "전통공예산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명맥을 이어나가는 공예인들의 장인정신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이번행사를 계기로 진안 창작공예공방이 더욱 활성화되어 전북을 대표하는 전통공예예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 예가람길미술관 기획전 29일까지 '이성옥展-꽃너울' 전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린 예가람길 내 하늘중학교 맞은편의 예가람길미술관에서는 6월 29일까지 '이성옥展-꽃너울'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이성옥 작가의 9번째 개인전으로 '꽃너울 연작'을 목판화로 보여준다. 자연 속에서 영감을 받고 꽃들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에 반해 그 느낌과 기억을 즉흥적이고 무의식적 몰입으로 소멸·다색 목판화로 찍어냈다. 유화 4점 포함 28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작가의 진면목을 감상하기에 좋은 전시이다.

작가는 가장 좋아하는 꽃을 모티브로 오랫동안 작업해왔다. 세상이 꽃처럼 아름다운 색채와 향기로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독백을 작품으로 펼쳐왔다. 작품 속에서 새롭게 피어난 꽃들 속에서 또 다른 생명력과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이성옥 작가는 "가수는 노래로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화가는 그림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 내가 좋아하는 꽃을 모티브로 나만의 유희를 즐기는 시간 값비로운 음악과 향기로운 커피 한잔의 여유로 꽃을 이야기하는 혼자만의 세계에 몰입해 있을 때 나는 가장 행복한 나르시스트가 된다. 이번 전시의 화두 역시 나만의 이야기 '꽃너울'이다. 세상이 꽃처럼 아름다운 색채와 향기로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나의 독백을 관객들이 어떻게 들어 줄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비우고 또 비워서 든든한 여백 한 편에 그들의 이야기를 가슴 따뜻하게 채우고 싶다"고 전했다.

예가람길미술관은 매달 다른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시립국악단 '청소년협연의 밤' 공연모습.

전주시립국악단 '청소년협연의 밤' 23일 공연

덕진예술회관에서

전주시립국악단의 '청소년협연의 밤'이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덕진예술회관에서 공연된다.

이 공연은 청소년국악연주자들을 발굴 시립국악단과의 협연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번 무대에는 지난 5월 오디션에서 선발된 위민영(해금), 오정원(피리), 신유경(거문고), 윤승(아쟁), 조수연(가야금) 5인이 박찬지 지휘자와 함께 출연한다. 청소년협연의 밤은 해금협주곡(지영희류

해금산조)로 연다. 이 곡은 경기시나위의 경쾌한 선율이 주를 이루며 폭넓은 농현(왼손으로 줄을 짚고 흔들는 연주법)으로, 해금은 줄을 당기거나 당긴 줄을 늦추어서 음을 다양하게 변화시키(이) 특색이다. 이어 피리협주곡(서용석계 한세현류 피리산조), 거문고협주곡(수리재), 박종선류 아쟁산조협주곡(금당)이 연주된다. 마지막 무대에는 강태홍류 가야금산조협주곡(파사칼리아)를 들려준다. 공연예매는 올레티켓 사이트나 전화 227-6278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장윤미, 전북무용제 발레라인즈 대상 수상

(사)한국무용협회 전라북도지회가 주관한 제25회 전북무용제에서 발레라인즈 장윤미 안무자(사진)가 대상(전라북도지사)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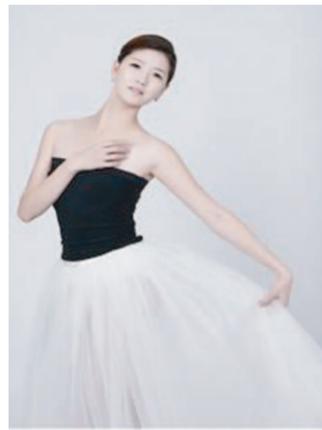
이번 대회에서 발레라인즈는 사교계에 대비하는 소녀들의 모습과 베를리오즈와 그의 이상형의 여인이 만드는 흥겨운 무도회의 한 장면을 그린, Un Ba(무도회) 작품을 선보였다.

최우수상(전주시장상)은 Alive Art Project 무용단이, 우수상(전북무용협회장상)은 이해원무용단, 흥자연무용단, Dane troupe H.M무용단이 각각 수상했다.

연기상은 Dane troupe H.M의 김현미와 흥자연무용단의 흥자연 무용수가 선정됐다. 이날 심사위원장을 맡은 백영태는 "무용에 장르가 없어지고 있어서 안타깝다. 장르가 정확한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평했다.

이에 한국무용협회 전라북도지회 영광육술협회 이사장이 맡았다. 대상 수상자인 발레라인즈는 25회 전국무용제에 전북대표팀으로 출전하게 된다.

2016년 제25회 전국무용제는 오는 9월 22일~10월 1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 개최된다. /정해은 기자



독), 고명규(사)한국무용협회 전라북도지회 수석부지회장), 류영수(사)보훈무용예술협회 이사장이 맡았다. 대상 수상자인 발레라인즈는 25회 전국무용제에 전북대표팀으로 출전하게 된다. 2016년 제25회 전국무용제는 오는 9월 22일~10월 1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 개최된다. /정해은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6월 21일)

<p>▷쥐띠 46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운이다. 60년생: 구설수, 시비가 따르는 운. 72년생: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84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니 상황을 잘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p>	<p>▷소띠 49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니 적극적으로 활동하라. 61년생: 어려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73년생: 동기간의 협동으로 해결된다. 85년생: 모진 말속에 해답이 숨겨져 있으니 원망하는 마음을 거두고 귀를 기울여라.</p>	<p>▷호랑이띠 50년생: 앞으로 나가지 말고 내실을 다져야. 62년생: 가을에 시달리다 단비를 만난 격. 74년생: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급격히 원형을 삼가라. 86년생: 욕심을 부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운.</p>	<p>▷토끼띠 51년생: 힘든 상황에 놓였던 사람은 한숨 돌릴 수 있겠다. 63년생: 도처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된다. 75년생: 모질고 귀를 험뜯게 하는 소리가 도움이 되는 운. 87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p>
<p>▷용띠 52년생: 동기간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이룰 수 있다. 64년생: 남자는 여성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 76년생: 들을 얻었으면 하나를 보내야 하는 운. 88년생: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면 화가 발생하니 마음을 비워라.</p>	<p>▷뱀띠 5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65년생: 예상보다 상황이 좋게 돌아갈 수 있다. 77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89년생: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평안하게 지나가는 운이다.</p>	<p>▷말띠 54년생: 주변에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생기는 운. 66년생: 지나치게 나서면 구설수가 따른다. 78년생: 주변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90년생: 약의 없이 행동한 일에 관련한 상황이 발생하는 운이다.</p>	<p>▷양띠 55년생: 내부에서는 결단이 필요한 때다. 67년생: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하지 마라. 79년생: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 있는 운. 91년생: 변동하면 흥분하고 좋아지니 망설이지 마라.</p>
<p>▷원숭이띠 56년생: 사고수를 조심해야 하는 때. 68년생: 금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80년생: 구설수, 시비가 따르니 언행에 삼가고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라. 92년생: 지나친 과민성은 주위 사람들과의 문제를 야기하니 조심하라.</p>	<p>▷닭띠 57년생: 볼에 수확을 하려는 격. 69년생: 지금 현재는 답답하고 힘드니 차츰 운이 좋아질 것이다. 81년생: 변화에 무리하지 말고 잘 적응해 나가라. 93년생: 천우신조가 있으니 매사에 순리대로 진행하라.</p>	<p>▷개띠 46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다. 58년생: 여자와 상대하면 반목이 많이 일어 잘 풀리지 않으니 주의하라. 70년생: 시비가 따르니 불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82년생: 좋지 않은 일이 몰려 다니는 운이다.</p>	<p>▷돼지띠 47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59년생: 움직이면 이득이 있고 머물면 손해가 따른다. 71년생: 성공하게 행동하기는 일이 늘어질 수 있음이니 조심하라. 83년생: 매사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운 후에 움직여야 한다.</p>